

실수의 교훈과 성장의 회고

김 선 희*

녹색의 푸르름이 봄·여름을 거치는 동안 위 숙한 색감으로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흰구름이 뭉개 뭉개 피어 오르는 마냥 평온한 아득한 전 원생활 - 시골학교만의 근무도 어느덧 8년의 날 개를 접는 짧고 긴 세월과 교차하는 목로에 들어 서고 있다.

처음 발령을 받고 터덜거리는 비포장길을 난 생처음 대하여 겹겹 산중에 마을이 있는 것을 겁먹고 남몰래 눈물 훔치던 아이였는데…

이제 아이들은 보건수업을 무척이나 기다리고 양호실은 학교에서 가장 사랑이 많이 담긴 교실로 교직원·아이들 누구나가 와 보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뀌어 양호실의 상담실코너는 늘 자리를 비울 새가 없게 되었다.

어쩌다 출장을 갔다오면 텅빈 학교 같다며 나의 부재를 서운해 하고 나를 기다려준다. 양 호실 환경이 바뀌는 날이면 아이들은 무엇이 바뀌었나 우루루 양호실을 찾아와 보고 확인하며 때로 문밖에서 궁금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엔 일의 방향을 제대로 몰라 혼자서 울며 수없이 학교를 떠나 일에 익숙한 병원에서 하얀 까운을 입으리라 많은 갈등도 가졌었다.

처음 1년은 보건수업도 제대로 할 엄두도 못냈었고 하루 50여명 되는 가벼운 구급처치에 몰두하면서 여기저기 눈치 살피며 자신없는 근무를 하고 점심 때가 되면 아이들 온수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 아저씨의 도움도 청할줄 모르고 직접 불을때 뜨거운 물을 일

일이 나눠주고 오후 늦게는 운동선수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기도 백숙을 만들어 주기도 하며 양호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확실히 모르고 파도가 치면 파도치는 대로 묻히고 쓸리고 그렇게 한 해를 보냈다.

그땐 보건지소 의사까지 교통사고로 부재 중이라 방과후엔 갑작스레 찾아오는 주민들의 응급처치 요구에 당황하면서도 간호사란 긍지를 갖고 침착하게 임해야만 했었다.

사실 시골학교에선 양호교사란 가정의 엄마와도 같아야 했다. 여기저기 다독거려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 .

그러나 서울태생인 내게 처음 시골의 생활은 의욕만으로는 부족한 힘든 생활이었다. 더구나 양호교사란 누구하나 제대로 관심을 갖으려 하지 않는 위치였고 혼자라는 이질감이 절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인수인계도 없었고, 제대로 지도해주는 이도 없었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거리가 먼 시작이었지만 생각하고 개선해나가고, 계절별 환자를 통계내어 다음해를 대비하고… 끊임없이 바쁘면서도 결과가 적은 해였다.

급기야는 그해 지금까지도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시골학교 어린이 두발에는 더러 긴 겨울과 봄이 되는 계절엔 하얀꽃이 피워진다. 인간사가 고달퍼 듯 어느 학교나 불행한 새싹은 늘 자라나고 있지만 그중 엄마가 부재인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때 봄이 오는 길목 아직 쌀쌀한 때였다. 머리는 온통 하얀꽃과 검은 이로 가득해 흥건히 진물이 들어리까지 적셔졌고 머리는 형틀어

* 충북중원군엄정면 양호교사

겼으며 의복은 까맣게 윤이나고 있었다. 그때 “세상에 아직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답답해서 치료가 막연했고 학교약품을 한 사람에게 계속 모두 투여 하기도 곤란했으며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었다. 우선 그 아이를 깔끔하게 볼을 데워 머리를 감겼더니 아뿔사—이가 까맣게 수복이 세솟대야 바닥에 쌓이기를 몇번—.

머리를 감기고 약을 바르고 약을 투여하고 어쩔 수 없이 단발로 머리를 잘라 주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모두 그럴 것이라 판단되어 형제를 데려오게 하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녀 5남이었고 가정은 불화와 가출로 깨어졌는데 대해 이해 못 할 서글픔까지도 느꼈다. 궁여지책으로 다행히 아는 수녀님의 도움이 있어 많은 구급약품을 받아 그 아이들을 10여일간씩 보듬어주었고 그 아이들을 서두로 전교생 머리검사가 시작되어 양호실에선 매일 똑같은 작업이 오후면 시작되었다.

사실 그 정도 어린이들에겐 가정통신도 아무 실효가 없었다.

그러던 중 눈이 유난히 크고 허름한 바지차림의 아이. 머리는 짧은 상고머리의 아이가 양호실을 찾았다. 그 아이도 머리엔 이가 머리를 틀어 박고 흡혈한 탓에 온통 헐어 진물투성이였다. 치료에 급급한 나머지 나는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상식에서 그 아이를 남자로 판단하고 머리를 아주 짧은 스포츠형 남자 머리로 꾸아버렸다. 그런데 가을이 오던 어느 날 그 아이가 갑기에 걸려 양호실을 다니 찾았는데 웃은 깔끔해졌고 짧은 머리를 양갈래로 조심스레 묶고 있었다. 순간 앗차 싶어 “너 여자였니?” 하니까 빙그레 조용한 미소를 쑥스러운 듯이 머금어 얼굴은 온통 붉어졌다.

그때 내 심정은 미묘한 아픔으로 얼룩졌다. 그 아이가 머리가 자랄 때까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짚었을까? —부모의 부재로 인해 그 아이가 겪는 고통에 나는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겼던 것이다.

지금도 매년 겨울과 봄이되면 아동들 머리검

사를 해서 조용히 차분하게 양호실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나 그때처럼 실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아픈 마음 주지 않으려고 아주 은밀히 하고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쟁기워준다.

처음엔 짧은 감정 수치심으로 대했던 아이들도 이젠 조용히 미리 찾아와 “선생님 노력했는데 또 생기려나 봐요 약좀… ”하고 스스로 자기위생 관리를 하고자 노력한다. 그밖에도 “성교육문제와 상담, 도벽가진 아이 버릇고쳐주기 간질로 고통받으며 빼뚤어진 사춘기를 맞이했던 아이, 색맹으로 자신을 비관하던 아이, 갑작스런 맹장, 화상 등… 양호실에서의 아름다운 사연 슬픈사연은 무수히 많지만 나자신 또한 그때 그 아이들을 통해 수없이 번데기에서 태어나 엄마의 길을 배우게 되었다.

또 시골학교에선 위생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가는 학교마다 보건수업 5분간을 용의검사 실천과 점심식사후 이닦기 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유도하고 있다. 용의검사를 하면 아침에 이를 닦고 오지않는 어린이가 90%가 넘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별 관심이 없었다.

가정통신문을 내어 치약, 칫솔, 컵을 준비한 다음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구강위생지도에 충심을 두고 전교직원 연수부터 실시하고 전교생 아동은 슬라이드와 비디오교육자료를 통해 반복지도를 한 다음 각학년별 단계적인 구강위생지도를 실시하여 수업과 이닦는 실습을 익혀 운동장에서 점심먹은 후 처음엔 반강요적으로 이를 닦게 했다. 그 다음 자율적 유도를 위해 실시음악을 틀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포상을 하며 가정에도 가정통신과 자보회를 이용하여 부모에게도 구강 위생 지도와 다른 보건교육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예방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년 결과평가에서 눈에 띄게 결과가 나타나 충치이완율 감소와 아동들 개인이 갖는 평균 충치수가 줄기 시작했던 것이다.

(의사의 구강검진으로 결과평가)

이에 아동들도 나자신도 기쁜마음으로 열심히

지도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또 한가지 기뻤던 일은 매년 대변검사 실시 한 달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서운 기생충병 예방에 대하여 슬라이드 활용교육을 시킨 결과 4년만에 처음 우리 학교 어린이의 기생충검사 익방자 100%에 기생충김엽율 0%가 되었다.

내가 양호업무를 수행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행히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담임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보건교육자료를 만들 때면 늘 격려해주고 보건수업시간을 만들어주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열심히 하고자 기도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생·로·병·사 중 “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지켜주는 양호교사란 내 위치에 아직 일반교사와 행정적 차별은 약간 있지만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웃으며 뛰어보고자 노력한다.

알립

- * 회원 여러분의 근무처가 변경되어 학회지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지가 변경된 분은 市·道 教育委員會 보건 계장님 또는 本 學會로 연락을 바랍니다.
- * 년 회비를 납부하실 회원은 우체국 온·라인 종합통장 (010892-0022072 김정근)으로 입금을 바라오며, 道 및 근무처를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